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7년 9월 29일(월) 제697호

학생식당 '직영' '임대' 줄다리기

교지·소극장 문제 해결조짐 보여

'학생자치권수호'라는 기호 아래 이번 학기 생활사업으로 부각된 '교지·교지편집위원회(교지문제)'와 '서울마더터 소극장·학생식당 문제'가 대학국족의 태도에 따라 해설이나, 계속적 마찰이나가 결코되는 기로에 서있다.

서울마더터는 학생운동은 지난 9월(8회) '학생자치권 수호를 위한 애교의 대 톨토 대회'를 갖고 △학생자치권 단체와 한총련 팀의 공연과 △교지 편집자 시인에 대한 진행상황 △교지 편집자 선임을 양상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종합대학장 유종열교수(인장·생·4)은 "학생자치의 역사는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집회 후에는 약 100여명의 학생들이 이 소극장·총무처·학생처와 함께 학교문제에 학생자치권 단체를 축구하며 연좌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10일(수)에는 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며 이어 일시화대운영위원회가 열려 이

"세상이 끝나는 소리는 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흐느끼는 소리다." (T.S. 엘리엇)

20세기는 이러한 두 소리를 다 내어 끝났다고 한다. 그러한 인식의 지반에는 다음과 같은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서도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하여 반성적 균대화의 원성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현실은 매일매일의 신문과 방송을 통해 '무한 가능성의 시대', '무자재 및 21세기'가 그러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울한 이 시대를 비정기적으로 하루도 함께 시대에 대한 환상적 꿈을 삼아주며 '경쟁력있는 자산'을 준비하라는 달본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다.

홉스버그는 20세기의 구조는 '파국의 시대', '황금의 시대', '국단의 시대'로서 일종의 3부작 샌드 위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1949년 이후 '자기조정적 시장체제' 소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면적 구조개편으로부터 시작된다. 풀라나는 이러한 구조를 '아미의 벗어나기'라고 한다. 일단 '벗어나'는 원심적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은 맷들이 원하는 형태로 갈게 부수어지면서反而하는 것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체제'는 이러한 원심으로 1914년부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파국의 시대'는 일어난다. 다음은 1945년 이후 이미도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짧은 시기보다도 더 길게 인신사화를 변화시킨, 약 25-30년간의 협동난 경제 성장과 사회적 변화인 '황금의 시대'다. 이 황금의 시대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달리 실제로 1970년대 후반부터 훈련리게 되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세례사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시기로서 파악된다. 지금 20세기 마지막부분은 '불화설상', 혼재, 위기의 시대이다. 이러한 역사학자의 인식은 '자본의 무한경쟁'이라는 또 다른 절실한 (?) 요구문에 묻혀버리고 만다.

글심는 순서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과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2.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한 전세계적 저항들
3. 신자유주의의 민족국가, 민주주의와의 관계

신자유
주의

자본주의의 경제적 발전은 '국가'라는 정치적 제도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철대로 발전할 수 없는 체계이다. 이것은 '민족국가' 이외의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경제적 예카테리나를 조율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태동하여 고했던 '임시적 축적체제' 시기초자 소위 '절대주의'의 국가의 경쟁정책이 아니었던 그들을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의 자율성'이 생긴다는 사실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의 구조는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이 긴밀히 내적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구조변화

근대민족국가는 자본주의의 역사와 평행으로 같이한다. 자본주의의 발전의 단계는 거시적으로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그리고 1900년대 이후 세계적 수준에서의 '질서제한인 '자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로 그 성격들이 변화되고 보여진다.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캬비크스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모토를 내건 '신자유주의적 축적구조체제'으로서 '자구적 자본주의'의 철학의 표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구화'라는 이 개념은 원래 초국적 기업의 전략, 즉 'global sourcing'을 지칭하는 것이다.

'자구화'란 기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전세계에 걸쳐 주로 다음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①시장 써면서도 양호한 질을 갖춘 노동력 ②시장 적합한 공급선 ③가장 앞선 기술 ④가장 유리한 생산지 ⑤최적의 통령파트너 ⑥시장 유리한 판매망성이다. (June 1996)

다시 말하자면, 자구화의 주요행위자는 초민족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거대기업이다. 또한 기

업의 전략은 중앙집중화를 통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은 지역화하고 탈집중화된 기업단위들의 네트워크형 의사소통을 통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해암, 1997) 이러한 세계경제의 구조변화가 이전에 질적으로 다르게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탈소재화'와 '탈국경화'로 지적된다. (Neyer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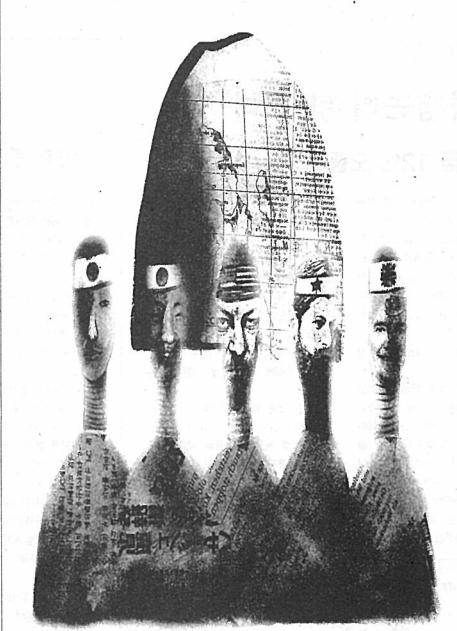
민족국가 역할변화에 대한 이론

즉 서비스의 국제부문이 갖는 비중의 증대와 직접부문의 3차산업 집중이 나타나고, 단지 국경 넘나드는 경제경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특히 영토와 민족국가가 그 자체의 전통적인 역할이 그 경제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판단은 다양한 입장차이를 갖고 있다.

혹은 국지적 제도민의 협성과 함께 악화된다. 첫째, 기술혁명과 정보통신수단의 발전과 함께 국경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본다. 민족국가단위의 해체를 조급은 자연스러운 과정의 한으로 쉽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승은 유럽의 전후 민족국가에서 개인주의적 민족복지국가의 '슬레이터주의적 업적 국가'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민족국가가 일정한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행위자로서 존속되는 경제가 여기서 생산과 생산관계의 사회화가 일국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에 따라 국가성의 탈



민족국가당원의 민족보장을 국가경쟁력이라는 요구로 대체되어가면서 소유적 개인으로 파편화시키고 경쟁과 업적경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탈락하고 있는 층을 기반으로 하여 인종주의적 차별운동과 신미시족 운동이 대두하고 있으며 민족증의 우방화 협상을 우려할 때마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팀-아일바이트제 도입, 생산과정에서 구상과 실현의 결합을 체현하는 소수의 대가능적 속도노동자층과 다수의 주민노동자층 및 실탄노동자층으로의 노동자층의 분할 등에 기초한 '포스트 포디움적 생산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동시에 불평등을 탈피하기 위해 자본의 노력(자본운동)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자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을 촉진시킨다.

구조 재편의 주체

그러나 김세균 교수는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개편을 추진하는 힘은 이전에 혁신자 유주의 세력이거나 사민주의의 세력이 아니라 '독점자본과 자유주의적 보수세력'일반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통화주의의 긴축재정의 실사, 소득세의 감소와 공급측면 경제정책의 실사, 복지예산의 확장과 공공부문의 탐구제화와 예산지출의 확장, 노동자집권의 쇠퇴라는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자본주의체제로의 성립강화는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를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 경제조직 메커니즘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구적·세계적 수준의 정치적 경제조직 메커니즘'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 넘어서는 정치논리 필요

이상에서 보았듯이 신자유주의적 축적구조화 힘으로 한 '자구적 자본주의체제'는 기존의 민족국가의 형태와 역할을 변화시킨다는 데에는 일정정도 합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형태

'포디움적-개인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와 '포드-포디움적-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특별히 제시된다. (김세균 1997)

'포디움적-개인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와 '포드-포디움적 생산체제'에 의해 빛받침되고 그 정자구조가 개인주의의 재생산과 자본증진을 위한 '단일의 경제조직 메커니즘'으로 융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세체는 세체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화가 발생한 것을 기점으로 하여 중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변화는 '포디움적-개인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부터 '포드-포디움적-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을 위해 특별히 제시된다. (김세균 1997)

이러한 세체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지배력이 혁신자유주의 세체와 시민주의 세체인 주축이 되고 개인주의적 계급사회를 추구하는 '코포리티즘적 지배체계'의 성격을 지니며, 크게 보아 '코포리티즘'을 추구한 시민주의세체에 의해 주도된 코포리티즘적 불화('자구화')과 '뉴얼럽'과 같은 '계급사회체제'의 구축에 찬성한 혁신자유주의세체에 의해 주도된 코포리티즘적 불화('여국국')으로 구별될 수 있다.

이러한 포디움적 생산체제는 경제구조적 불화를 거치면서 과학기술혁명 성과를 생산과정에 도입한 것이다.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동아시아,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팀-아일바이트제 도입, 생산과정에서 구상과 실현의 결합을 체현하는 소수의 대가능적 속도노동자층과 다수의 주민노동자층 및 실탄노동자층으로의 노동자층의 분할 등에 기초한 '포스트 포디움적 생산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동시에 불평등을 탈피하기 위해 자본의 노력(자본운동)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자구적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을 촉진시킨다.

최경희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학기>

One & Only

보는 눈이 다르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천 신사옥을 완공하였고, 첨단 섭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제지 등 미래산업에 대안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향한 전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 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The future together

공안탄압 연장선에 대학언론마저…

건대 제작중지, 원광대 학교홍보지화 등 탄압극심



하고 죽음은 '이미 과학적인 완공된 상태로 전부에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는 나갈 경우 2학기 대학원불경과(대학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사의 삭제를 요구', '啄啄수'지 않음으로 신문발행을 중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학생기자들은 이 기사를 다른 면으로 읽어 1면 머리기사에 건대신문학과 한글촌 블립伐 방침과 15명의 구교수에게 관한 기사를 넣기로 했으나 학교측은 이것이며 '한총련 이야기는 넣지 마라. 1면 기사는 교과·퇴임 회의식 기사와 신문사를 넣으마고'며 강요, 학생들은 이를 일방적으로 발행중지를 통보. 신문발행권이 중지됐다. 이후 학교측은 설문조사 품위를 통해 신문의 발행방향을 설득하려고 설문조사 전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대신문사 편집국장 송정은양은 "학교측의 이런 태도는 명백한 학생 친탁관행으로 편집자권을 침해하고 이는 글 신문을 학교 홍보지화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결과 설문조사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설문내용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학교신문은 학생들의 등록증으로 만 들어있에도 불구하고 문에는 "건대신문은 학교 예산으로 만들었어진다"라고 밝혀 다분히 의도 학교 예산으로 만들었어야 한다. 또한 학교측은 공공연히 "한총련이 총장으로 총장이 원하지 않는다"는 신문을 만들 경우에는 신문을 빼간다기보다는 그 밖하고 있어 원집자권 탑압을 통해 건대신문의 발행보다는 학교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거나 이것이 아닌 인장을 풍긴다.

원판매 신문사의 경우 주간교수가 편집자기자들의 미성을 계기로 전부의 서회를 지시해 미성을 빼고 있다. 이후 주간교수가 지적으로 기자를 선별, 신문은 학교 홍보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구교수독재시대처럼 편집권과 인사문화를 탑압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에도 예산제, 교과교육제 문제로 학교측에서 관리하다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대, 세종대, 산지역 교지 등도 현대미술관과 친목을 미화를 견고화하고 있다. 김길성 정권은 이미 교과부를 통해 학내에서 대안학습지도를 학교측에 요구한 바 있어 대안학습지도법은 정권과 학교에 의해 외면되는 심각한 학생차별화 탑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서균관 대언론학) 교수는 "주간교수가나 학교가 대학언론을 교육의 연장선으로 인식으로 보는 발전천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과 학교에서 대학언론에서의 언론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허무 빌리 바로잡고 대학언론자유에 대한 입장도 그림워어 하지 않을까.

용토지를 국가가 환수하여 도시서민들의
정에 맞는 역구임대주택을 짓어 입주를

이렇듯 민중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는 것에 반해 건설자들은 임청난 이운을 낳기 위해 놓다. 정부로부터만으로는 자금·기술·지가·토지를 불허받아 개발을 시rogram. 개발 시장에서는 비단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로인한 개발비용은 엄청나다. 이러한 업 청난 애수의 개발이야말로 일부는 정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되거나 되고 또 다시 시장으로부터 다른 자본의 토지를 공시가액으로 불허받는 경관과 자본의 공생관계가 형성되며 민부광을 겪거나, 자생성의 학계를 극복하고 목적의식적인 칠거민부광을 시작하게 된다.

남은 자본주의로 모으는 발행하는 강제체제 거는 단순히 찰거민부의 문제로 설정되어어서는 안된다. 강제체질의 모자는 본자녀의 체제속에서 생존권을 애타게 헤아리면서 전 민족의 문제로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칠거민부광이 칠거민부의 부광이 아니라 토지, 주택정책과 부조국민을 깨우는 전민족의 부정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극복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재벌의 비업무

조 가 영
〈경기철거민연합 사무차장〉



‘시민이권신’에 대해 설명해달라

“분단이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고 있다”

‘시민안전’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도 인권교육이란 것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학교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권의 별모지하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장을 위해 개인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몇년 전부르는 그들을 위한 qualche ‘인권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시민안전’은 노년부터 서울시립대학에서 사업회 회장(정책학)과 우리나라에서 회복되지 못한 인권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단체로, 그 주제를 인권이라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심이다. 이 심은 유행로 다른 페스티벌과 맞고, 최근에는 ‘정신대문제재해위원회’가 이 같은 수상하기도 했다.

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운동본부' 소개와 활동에 대해 설명해달라

운동분부는 지난 92년 10월 웅금이씨가 미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이후 미군법죄근절을 위해 미군법죄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결성됐다. 이를 폐지해 대한 지원과 보상, 그리고 가해자의 처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둔과 관련한 문제 등 민족주권회복운동을 하고 있다.

대선후보에게 앙심수석방·국·법보 철계 촉구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채택했다.
‘양심수석방과 국가안보법 철풀개 험위 민기’	김영삼 전권 대행이 속구한 앙심수는 지금까지
법 폭력화(국회법집회)	2008년에 이어되고 있고, 현재 감옥에 있는 980명
법회를 맞았다.	이상수는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씨를 비롯 980명 정도이다.

민가협 목요집회 200회 맞아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벽이다. 외국군대가 50년이상 주권국으로 주둔하고 있고, 군주작전권을 외국 즉 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병사는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과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미국방위관의 말 언론에 무게를 둔다. 미군에 의해 평화를 맛보았을 때도 깊은 '중전시 상황에 어떻게 미군에 대해 내놓고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이 모두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반기동으로 예고가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과 재고와 대처 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공연에 들어온 학생들이 개회하고 있다.
한국 1년 차 세계환경생태축제 참가자들 친환경 방송했던
임수경(30·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축제에서는
임수경씨는 “김강립 장관 이후 한번의 임상답사
서방에 없었다”며 “제가 김강립 대통령과 대
선후보에게도 ‘제... ora’ 사명보다는 5·6·7등 반대
해 구속된 양심당수들 사명... 본관·부관을 넘어서
제 생각에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영
네스티드와 아이언아카데미원회장 등 세계 각 인권단
체에서 축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전에 강의에 있는 임상답수를 모두 밝혔고 국가
보안법을 비판하는 각종 범주별 토론을 청취하는
장면이었다.

주한미군법무처근질운동본부(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관진 총장)가 지난 9월 23일(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수상하는 시민인권상을 수상했다. 이에 본보는 운동본부 정유진 사무국장을 만나 시민인권상의 의의와 그동안의 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한국을 움직입니다
세계를 움직입니다 -**

글 심사 순서

1. 학생회와 학생회의 공통분모는...
2. 개인단위의 실제
3. 한총련, 그들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4. 학생회, 그 혁신의 현장을 찾아
5. 졸업회·학생운동의 재도약을 위하여

학 생회 활동을 보석한다 - ③ 한총련, 그들은 과연 이적단체인가

진보단체는 곧 이적단체다

한총련 해체는 정권재창출 청신호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우리나라 대학생은 모두 범법지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지난 6월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일어난 이석씨 치사사건을 계기로 대검공안부(주선회 김사장)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몰았고 중앙조직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 현재 사업자리 대상 41명 중 59명이 구속, 67명이 불수술로 나머지 26명은 감기되거나 입기 위험 '폐·신' 중인 상태이다. 또 검찰의 한총련 탈퇴운동과 관련하여 한총련 소속 206개 대학 중 154개 대학·전체의원 165명 중 136명이 한총련을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 숫자상으로 봐도 충격할 지경이다. 평면 한총련은 이런 물리적·정신적 탄압을 받고자 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렇지만 지금의 난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이유에서 한총련의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은 무엇이며 이적단체규정으로 인해 한총련과 그 모태인 학생회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지 또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시위진입 역사상 최대의 최루탄 사용·최대 경찰번역부임·최대물파·중장비도입 그리고 학생운동 역사상 최다 연행자(6000여명)라는 기록을 세운 지난 8.15 세력화통일성장 이후 한총련의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는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1년이 지난 오늘, 감찰은 한총련 중앙조직 전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이에 밀맞아서 제도 언론의 길조포함도 진행됐다. 물리적 탄압과 함께 언론으로부터 한총련을 소외시키는 작업이 언론으로부터 한총련을 선별·축적으로 조작된 단체'라고 외쳤다. 한총련이 거리에서 외쳤던 △

공인당국은 연세대총장 직후에도 한총련의 이적성을 검토했으나 거의 모든 대학생을 차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성명과 미워요상 이석씨 치사 사건을 계기로 그 폭력을 이적성을 좌시할 수 없다며 중앙조직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공인당국은 논리는 크게 △한총련의 이념적·지향성이 북한의 남북정책 협력노선과 궤를 같이 드는 △이석씨 폭행사사건 등 그 활동이 학생운동 자원을 넘어서는 등이다. (세계일보 6월 11일자 참고)

그러나 감찰 즉 공인당국의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은 기본적인 법논리에 맞지 않는다. 먼저, 스스로 학계를 인정했듯이 한총련 중앙조직이 이적단체로 규정됐을 때, 한총련 소속 100만 대학생이 모두 이적단체 구성원이 될 수밖에 없다. 즉 100만 대학생이 모두 범죄자라는 논리다. 당연히 공인당국에서 감자·탈퇴운동을 할 때에는 한총련의원들이 직접 봄은 단체에 학생회장이 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학생회장은 한총련을 만들었다는 이유에 반대하는 듯하다.

한총련은 허나 말하는 보수언론에서조차 해왔던 얘기다. 어느 부분이 이적인가? 한총련 그들 이 내세우는 자주·민주·통일 중 어느 것도 국가를 태우겠다는 행위로 한편에 밝힌 바 없는데 다만 동조한 후폭로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80년 5.18광주를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이유로 언론·정권에 의해 빨간색 딜칠해졌을 뿐이다.

한총련은 이런 학생운동의 역사적 사명을 뛰어넘어 한총련에서 새겨진 학생운동을 아난다.

이상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적 부당성이다. 그렇다면

한총련은 어떤 조직인가.

한총련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 발전을 해온 학생운동조직이다. 일제시대 3.1만세운동이나 6.10만세운동, 항일독립운동이나 4.19혁명

